

Y2k 인증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도 ITAA와 같은 단체를 구성해 미국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 저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강 병 창 / 현대2000년문제대책위원회

현대의 많은 기업 및 단체들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자신들의 모든 컴퓨터 관련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영속해 나가게 되기를 보장 받기 바란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2000년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날로 커져 가면서 2000년 문제에 대처하는 회사들의 대응 방법과 과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2000년 문제 인증」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2000년 문제 인증」 획득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산업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Y2k인증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큰 장점을 가져다 준다. 우선 2000년이 다가올수록 Y2k문제 해결 여부의 확인과 검증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질 것이므로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획득한 인증 사실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Y2k대

응 과정이나 방법이 전문적인 통합기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관련 산업계에 전달함으로써 시장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Y2k에 대처해 나아 하는가? Y2k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rule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준비 및 자료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첫째, 그 기업 내 2000년 문제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Y2k대응을 위한 기업의 목표 정의, 기업내 시스템 재고파악, 파악된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등이 먼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작업이 끝나면 Y2k문제 대응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범위 및 특성, 통제, 비용 기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Y2k대응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해 나가면서, 이러한 요

구사항을 수용하는 디자인을 개발/수행하여 시스템 단위별로 테스트 해 나가고 그 산출물을 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 구성요소 및 전체 시스템이 다른 외부 시스템과 상호 작용시 요구사항에 맞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다섯째, 개발팀 등에 의해 진행된 Y2k작업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는 일과 작업 전과정에 걸쳐 고객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섯 단계에 대해 자신있게 Y2k대응을 추진한 조직이라면 어느정도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Y2k인증을 제공하는 권위 있는 해외 기관으로서 미국의 ITAA(미국정보기술협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하여 제시한 표준을 전문 검증 기관에 위탁해 Y2k해결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 많은 업체들이 ITAA의 공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현재 Y2k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최 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Y2k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모든 업체들이 외국의 인증기관의 힘을 빌어 공인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수익불 이상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TAA와 같은 단체를 구성해 미국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조속한 국내의 Y2k인증기관 설립은 대외적인 신인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Y2k문제와 관련한 예상 손실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해왔던 대응책의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Y2k인증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사전에 활용함으로써 Y2k대응작업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인증기관 설립문제와 더불어, 정부는 Y2k대응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Y2k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한가지, Y2k인증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것은 Y2k인증이 2000년 문제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예러가 없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로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어느 측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예상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련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며 우선 공공성이 큰 부문부터 최대한의 검증 및 이행 Test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자신들의 Y2k추진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여 Y2k와 관련한 입지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